

5-16-2010 주간 메세지

성시: 116:1-19

본문: 요한복음 12:20-41

제목: **죽음을 통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방인들(헬라인)이 등장한다.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뵈고자 청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역하시던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 말씀하신다. 이전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을때에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친히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자신이 영광받으실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에 가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 (요 4:6-30).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광받을 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는 순간이 영광받을 때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이 유대인을 비롯하여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심으로써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동시에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주님의 영광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는 일에는 반드시 혼의 고통이 따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을 때 모든 혼의 고통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달라고 간구하신다. 이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심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거니와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응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받으실 영광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세상 통치자인 마귀를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신다. 세상 통치자들은 상대방을 전쟁에서 죽임으로써 그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영광스럽게 개선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대방 통치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세상 통치자 마귀를 이기시고 그를 지상에서 쫓아내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엡 6:12)고 증거한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이 지구와 함께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에덴을 중심으로 이 지구상에 세워진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마귀의 왕국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천국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아시고 오셨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받으신 후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유대인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어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목적에 대하여 증거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히 2:14-15)

그렇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를 지상에서 쫓아내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 진리를 깨닫고 세상 통치자를 쫓아내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세상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실을 슬피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이란 아무리 취한다 해도 영원하지 못하며 죽을 때 끝이 나게 될 것을 미리 슬피하면서 애초부터 세상의 행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실 (요 14:6)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와 슬픔이 영원히 해결됨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신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시 116:15) 그렇다!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세상신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 같은 세상 교육들은 마귀의 걸작품들로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들의 죽을 건너 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통치자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자신의 죽어짐을 통하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시게 하여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증거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그리스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전 15:45)

이런 연유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자신의 영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즉시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올라가셨던 것이다.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 **“너희를 떠나 함부로 들러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말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요 12:26)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에 대하여 물으실 것이다. 많은 영혼을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할렐루야!

5-16-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16:1-19

Main scripture: John 12:20-41

Subject: **The Glory of Christ through His death**

For the first time, the Gentiles (Greek) are in the stage through the main passage. They requested to see Jesus through his disciples. Now Jesus is speaking to the Gentiles for the first time in his ministry. When Jesus called his twelve disciples in the beginning, he spoke to his disciples, **“Go not into the way of the Gentiles, and into any city of the Samaritans enter ye not :” (Matt. 10:5)** But now he met with the Gentiles, and talk about the glory that he was going to receive. Jesus already had met with a woman in Samaria to manifest himself Christ (John 4:6-30).

Jesus explained them about his glory that is to be realized through his death saying, he shall be a corn of wheat to die for not only for the Jews, but also for the Samaritans and all the Gentiles in the world hating his life. Jesus spoke unto them, **“He that lov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hateth his life in this world shall keep it unto eternal.”** Therefore, his glory is to give the life eternal unto all of them that believe on him.

But the glory is followed by the soul troubled, saith the Lord. But he could overcome the pain of soul. Jesus asked the Father to glorify His name though his death. Then the Father answered him saying, **“I have both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Jesus was going to cast out the Devil, the prince of this world through his death and glory. The princes of the world are glorified by killing the enemy, and occupy his territory; but the Lord Jesus rather willing to put himself unto death instead of killing his enemy to conquer his enemy, the Devil to cast him out of the world for his glory. The warfare of the Lord Jesus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spiritual one.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spiritual warfare: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Eph. 6:12)

Since Adam, the first man sinned unto death he fell into the slave of the Devil that has the power of sin and death, and gave in all things received from God with the earth. After all the kingdom of heaven centered in the Mount Eden built in the earth was transferred to the kingdom of the Devil. The Father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as the likeness of Adam to the earth to restore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earth; and he knew the only way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s to be done through his death. Because of this, he talk about his suffering,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form time to time with his disciples, but they couldn't understand. Now Jesus is talking about this with the Gentiles, not the Jew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o that, he is talking about the salvation giving the life eternal drawing all men unto him when he is to be lifted upon the cross.

Understanding thi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purpose that Lord Jesus was manifested as a man: **“Forasmuch then as the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And**

deliver them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 (Heb. 2:14-15)

Yes! The only way to free them that are the slavery of death is to cast out the Devil, the prince of the world. Apostle John also testified of the only way to cast the prince of the world out:

“He that committeth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th from the beginning.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1John 3:8)

All things in the world such as religions and philosophies and science could be summarized as one category; all the happiness is to be ended with death making all things in vain proving them the slavery of death. They don't know that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The bible says of the death of the children of God that received the eternal life through the death of Christ: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Ps 116:15)**

Yes! The death of the saints is the beginning of the eternal blessing with the life eternal.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preach the gospel unto them.

All the education such as religions, philosophy and science is the masterpiece just like a snail made by the Devil, the prince of the world to blind the eyes of the sinners so that they may not see the eternal life and eternal joy and blessing therein beyond death. They that entered into the kingdom of God to have eternal life delivered from the Devil through the death of Christ could revive the death manifesting the life of Christ through denying themselves hating their life.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truth understanding through the Spirit: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was made a living soul; the last Adam was made a quickening spirit.” (1Cor. 15:45)

Because of this, Jesus commanded unto them that believed on him promising to pour his quickening Spirit: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Acts 1:8)

After he had spoken this, he was taken up while they beheld. And the angels spoke to them clearly:

“This same Jesus, which i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shall so come in like manner as ye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 11)

Let us not forget the word of the Lord appeared in the main passage:

“If any man serve me, let him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shall also my servant be: if any man serve me, him will my Father honour.” (John 12:26)

When the Lord Jesus comes again, he shall ask unto all men that receive the power through the Holy Ghost about the life as the witness unto him. This is the real man of faith that is looking forward to reward of faithful servant that revive many souls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Hallelujah!